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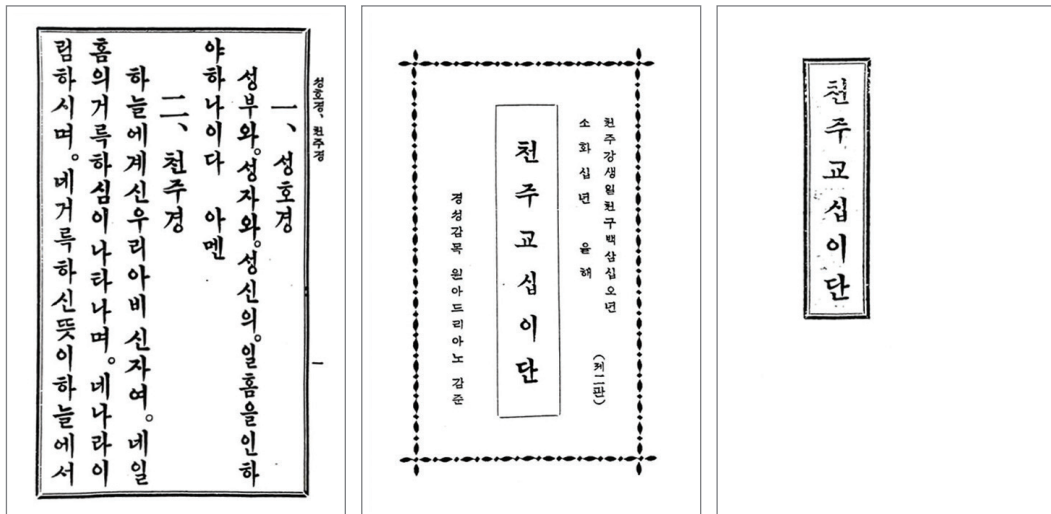
‘십이단’(十二端, 주요 기도)에 수록된 기도문 소개 (4)

- 예전 십이단 기도문, 『천주성교공과』와 『천주성교십이단』의 대조 -

『천주성교십이단』(줄여서 ‘십이단’이라고 함)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립하여 국가에 의해 금압(禁壓, 금지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익혀야 하고, 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현재에 사용되는 『가톨릭 기도서』 제1편과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부록에 실린 ‘주요 기도’는 ‘십이단’ 기도문이 수정·추가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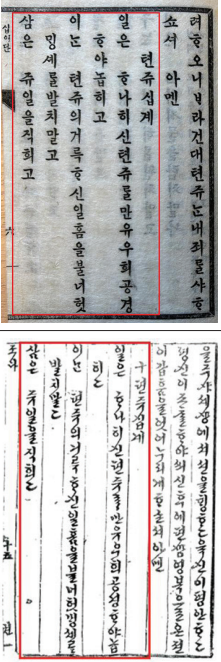
‘십이단’이 언급된 기록은 교회 측 자료[신자들의 증언록, 선교사제의 서한]와 관변 측 자료[포도청등록]에서 확인됩니다. 신자들은 가족, 회장 등에게 ‘십이단’을 배워 세례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전파할 때 교리(문답)와 ‘십이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관아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십이단’ 등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십이단’과 관련된 신자들의 기록을 지난 상교우서 3월호(118호)부터 7월호(122호)까지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서적에 나오는 ‘십이단’ 기도문은 1860년대부터 확인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의 ‘주요 기도’와 비교해 보면 용어와 표현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기도문의 순서도 다르고, 기도문이 빠지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8월호부터 ‘십이단’에 수록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주성교공과』(1862년)와 『천주성교십이단』(1886년)을 비교하면서 현재 기도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천주교십이단』 활판양장본 (1935년 제2판) *1931년 한국 주교회의 이후 기도문 개편 반영

예전 십이단 기도문 - 턴쥬십계(천주십계)[현재 십계명]

턴쥬성교공과 (1862년) / 턴쥬성교십이단 (1886년)	'십이단'(위)과 '공과'(아래) '천주십계'
<p>턴쥬십계</p> <p>일은 하나님신 턴쥬를 만유우희 공경하야 넘히고</p> <p>이는 턴쥬의 거룩하신 일흠을 불너 헛밧세를 밧치 말고</p> <p>삼은 주일을 직히고</p> <p>스는 부모를 효도하야 공경하고</p> <p>오느 사람을 죽이지 말고</p> <p>룩은 사음을 행치 말고</p> <p>칠은 도둑질을 말고</p> <p>팔은 망녕된 증참을 말고</p> <p>구느 남의 안히를 원치 말고</p> <p>십은 남의 재물을 탐치 말나.</p> <p>[십계 도모지 두가지에 도라가니 턴쥬를 만유우희 스랑흠과 사롬 스랑 흠을 주긔긔치 흠이라. 이는 넷적에 턴쥬 명하샤 보세만민으로 하여 곱조차 직히게 하신 거시니 직히는 자는 상을 밧아 턴당에 올라 영복을 누릴 거시오. 거스리는 자는 벌을 밧아 디옥에 내려 영앙을 밧으리라.]</p>	 <p>*공과에는 제목 앞에 '十'(십이단) 표시가 있음</p>

* '천주십계'가 나오는 순서는 『턴쥬성교공과』와 『턴쥬성교십이단』이 서로 다릅니다. '십이단'에는 8번째에 나오지만, '공과'에서는 십자 표시 기도로는 6번째[삼중기도를 포함하면 7번째]에 나옵니다. 1934년 이전의 『턴쥬성교공과』와 『턴쥬성교십이단』 판본에는 십계명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1931년 개최된 '한국 주교회의'에서 기도문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개편 기도문은 1934년 이후 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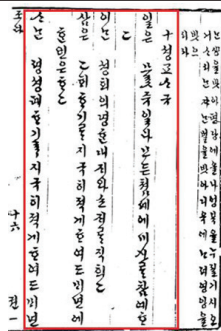
** '십계명 설명' 부분을 현대어 표기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계 도모지[모두] 두가지에 돌아가니[함축되니] 턴쥬를 만유(萬有, 우주만물) 위에 사랑함과 사람 사랑함을 자기같이 함이라. 이는 옛적에 천주가 명하시어 보세만민(普世萬民, 온 세상 모든 사람들)으로 하여금 좇아[따르게 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니, 지키는 자는 상을 밧아 천당에 올라 영복(永福,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거스르는 자는 벌을 밧아 지옥에 내려[떨어져] 영앙(永殃, 영원한 재앙-벌)을 받으리라.”

[현재 기도문] 십계명

- 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사.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오. 사람을 죽이지 마라.
- 육. 간음하지 마라.
- 칠. 도둑질을 하지 마라.
- 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 십.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성교수규(성교사규)[현재 기도문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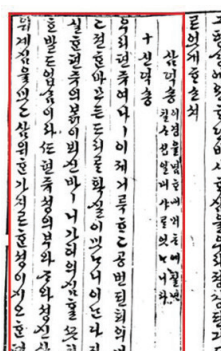
현주성교공과 (1862년) / 현주성교십이단 (1886년)	현주성교공과 1권 '성교사규'
<p>성교수규</p> <p>일은 므릇 주일과 모든 침례의 미사를 참예하고 이는 성회의 당헌 대지와 쇼지를 직히고 삼은 고회하기를 지극히 적게 하여도 미년에 한 번은 하고 스는 령성제하기를 지극히 적게 하여도 미년에 한 번은 하라. [이 기약은 예수 부활 침례 전후 니라.]</p>	 <p>*공과에는 제목 앞에 '十'(십이단) 표시가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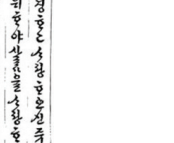
- * '성교사규'가 나오는 순서는 『현주성교공과』와 『현주성교십이단』이 서로 다릅니다. '십이단'에는 9번째에 나오지만, '공과'에서는 십자 표시 기도로는 7번째[삼중기도를 포함하면 8번째]에 나옵니다.
- *** '성교사규'는 기도문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칙]인데,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십이단'(주요기도)의 일부로서 암기해야 했습니다. 1931년 '한국 주교회의'의 결정으로 개편된 기도문에는 '성교법규 중 사규'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962~19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개정된 『가톨릭기도서』 1968년판부터 '성교법규 중 사규'[성교사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6년 7월 2일 한국 주교회의에서 '십이단'을 '주요 기도문'으로 개칭하면서 기도문 내용과 편제를 개편했고, 1967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교회의는 『현주성교공과』 기도서 자체도 수정·개편하여 1968년 12월 『가톨릭기도서』를 간행하고, 1969년부터 공식 사용하게 했습니다. 1968년판 기도서가 현재 『가톨릭기도서』의 원형에 해당되며, 1972년, 1997년, 2018년에 걸쳐 내용과 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문 없음 / '성교사규'의 현대어 표기]

일은 무릇[모든] 주일과 모든 침례(瞻禮, 축일)의 미사를 참예하고
 이는 성회(聖會)의[천주교가] 정한 대재(大齋, 금식)와 소재(小齋, 금육)을 지키고
 삼은 고해하기를 지극히 적게 하여도 매년에 한 번은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 의무 규정]
 사는 영성제하기를 지극히 적게 하여도 매년에 한 번은 하라. [1년에 한 번 이상 성체성사 의무 규정]
 △ 이 기약은 예수 부활 침례 전후이니라. [고해·성체성사 의무 조항들은 부활대축일 전후에 지킬 것]

예전 십이단 기도문 - 삼덕송 중 신덕송[현재 삼덕송 중 신덕송]

현주성교공과 (1862년) / 현주성교십이단 (1886년)	현주성교공과 1권 '신덕송' - 원문(위), 약식(아래)
<p>삼덕송</p> <p>[이 경을 넘하매 미쳐 칠칠 수십일 대사를 었느니라]</p> <p>신덕송</p> <p>우리 현주여 나 이제 거룩하고 공변된 회의 밋고 전하 바 모든 도리를 확실이 밋느니 이는 다 진실한 현주의 붉이 뵈신 바 니 가히 의심할 곳치 호발도 업습이라. 또 현주성에 부와 주와 성신 삼위 계심을 밋고 삼위 한가지로 한 성이시오 한 테시오 한 현주 심을 밋고 테이위 현주성주 성신의 기묘한 공을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강잉하사 사름이 되심을 밋고 더 우리를 구속하기를 위하여 난을 밋으사 십자가상에 못박혀 죽으심을 밋고 그 죽으신 후 사흔날에 부활하심을 밋고</p>	

현주성교공과(1862년) / 현주성교십이단(1886년)	현주성교공과 1권 ‘신덕송’- 원문(위), 약식(아래)
<p>그 승연함을 밋고 더 세상 못출 때에 하늘노조차 보세만민을 심판하라 오사 선자는 상주소 텃당애 올녀 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악자는 벌하샤 더욱 에 느리워 긴 형벌을 받게 하실 줄을 믿는다. 나 흥상이 도리를 밋어 빈 궁고난과 살고 죽음에 조금도 감히 비받치 아니려 하오니 주께 구해건대 내 신덕을 더으쇼셔.</p>	
<p>● 신덕송</p> <p>[신마의를 자조 발할 때에는 이 아래 삼덤통이라도 가하니라.]</p> <p>우리 현주여니 온전이 진실하시 스스록 속지 못하시고 또한 우리를 속이 지못하기를 인하여니 불이 뵈신 바 모든 도리를 성교회의 견해야 그르친 심을 따라 확실이 맞는이다.</p>	<p>*공과는 제목 앞의 ‘十’(십이단) 표시가 긴 ‘삼덤통’에는 있고, 짧은 ‘삼덫송’에는 없음</p>

*공과에는 제목 앞의 ‘十’(십이단) 표시가 긴 ‘삼덕송’에는 있고,
짧은 ‘삼덕송’에는 없음

* ‘삼덕송’ 제목 아래에는 ‘삼덕송 기도를 바치는 신자에게 베풀어지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풀면 “매차(每次)에 7년 7[반] 40일 대사(大赦)”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7년 동안 모두 7번, 해마다 40일의 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사 규정은 교황 그레멘스 13세(1758~1769) 때 반포되었습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4164~4165쪽. ‘삼덕송’ 항목 참조.)

※ 『천주성공교과』에는 위의 ‘삼덕송’ 외에 또 다른 ‘삼덕송’이 실려 있습니다. ‘적은[작은] 삼덕송’이라 불리는 이 삼덕송은 분량이 위의 삼덕송보다 짧은데, 현재 사용하는 ‘삼덕송’의 원형이 됩니다. 1931년 ‘한국 주교회의’에서 개편된 ‘십이단’ 기도문[1934년 이후 간행]부터는 간략한 ‘삼덕송’이 원래 ‘삼덕송’ 대신 실리게 됩니다. 1966년 ‘십이단’에서 ‘주요기도문’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간략한 ‘삼덕송’이 계속 실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천주성공교과』에서는 ‘삼덕송’ 두 가지가 모두 실리다가 1968년 『가톨릭기도서』(주요기도문)부터는 (약식) ‘삼덕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도문] 삼덕송 중 신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7호, 9월 30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